

2015년 5월 18일 새벽 정리 말씀

금주 말씀은 복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음!

복음과 전도는 다르다. 전도는 개인에게 가서 하는 것이고, 복음은 범위가 넓습니다.

꽃나무의 가치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을 붙이면 복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시대의 하늘로부터 떨어진 말씀, 메시아가 선포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끊어버리면, 어느 때 끊는가 하면, 복음이 끊어질 때가 어느 때 끊어지는고 하니, 에덴동산에서 복음을 끊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끊었는고 하니, 범죄함으로 복음을 끊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왜 끊어지는고 하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 인연을 끊을 때 복음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화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화 됐다는 것은 말씀이 아주 체질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말씀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화됐다, 말씀이 만물화됐다!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 만물화됐다! 육신을 통해서 육신화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만물이 됐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또 선생님처럼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생활종교는 살아남아지지만,

관념적인 종교는, 관념 신앙은, 생각만 하고 안 하는 신앙은 관념 신앙입니다. 관념적 신앙은 사라집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는 단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애정과 사랑과 높임과 존경함과 위해줌과 섬김의 도리를 하면서, 늘 수발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과 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가지고 살아봐야 말씀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체화합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체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체사상, 성령의 감동감화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상으로 우리가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말씀이 생활화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니까 우리가 감히 이해를 못합니다.

시대의 눈을 뜨고, 사건의 눈을 뜨고, 섭리의 눈을 뜨고, 모든 눈을 뜬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육신의 눈같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라. 시대의 눈을 떠라. 지식의 눈을 떠라. 또 학문의 눈을 떠라. 철학의 눈도 뜨고, 또 나아가서는 은혜의 눈도 뜨고, 말씀의 눈도 떠라. 모두 뜨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자기 인간 개발, 인간의 심리적 개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영복입고서 수영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의젓한 일입니다. 의젓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의젓한 일이다!

핍박, 어려움을 강조하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장사를 해도 어려움이 있고, 살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모자간의 갈등, 모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갈등.. 다 갈등이 있습니다. 또 인생 스스로의 자기생활사에 따라서 고뇌와 고통과 번민이 다 있습니다.

사상을 갖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딱 먹게 가르쳐 놓은 다음에는, 그 후부터는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상이 잘 못 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상이 잘 못 됐다, 정신이 잘 못 됐다.” 사상이 잘 못 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잘 못 되면, 개념이 잘 못 되면. 개념을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얘기들이 다 복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외치라! 가르치라!

말씀이 육신화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론은 은, 실천은 금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월명동도 구상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다음에는 써먹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써먹느냐가 문제입니다. 계속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써먹을 때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야 좋습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남의 것을 써 먹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몰래 먹는 것이 더 고소하고 좋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냈을 때,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도 주인의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주었어도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병신입니다.

내가 여기 둘에다 큰 눈을 그려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렇게 되면 시험발도 안 받습니다. 생활화 안 하면 좀이 쑤시고 무릎이 쑹습니다. 복음을 자기의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먼저 복음에 대한 근본을 깨달아라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체질화하고 좋으면 전해야지, 좋지도 않으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먼저 그 물건을 사서 써 보고 좋으면 자꾸 권하잖아요. “아, 그 물건 안 좋다 하더라.” 하면 “내가 써 봤는데 안 그렇더라. 훨씬 좋다.” 그렇게 하듯이 자기가 먼저 복음을 체질화해서 복음을 온전히, 복음의 가치를 자기가 쓰고 혜택을 보고서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 복음에 대한 한 주간을 맞아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 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음을 권위 있게 전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복음을 표적과 이적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지상천국에 관해서,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전하면 누구든지 복음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 복음들이 체질화되어서 이제는 창조 목적을 이루며, 또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의 부활을 하면서 복음이 체질화돼서 가고 있사오니 모두 그렇게 더욱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의와 사랑과 진리를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넣으면 사탄과 귀신이 나가고 영들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되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의 뜻에 모든 일군을 삼으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손발로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의 주인들, 복음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우리 육신화돼서 생활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육신으로 보고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만물을 보고 깨닫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의 근본을 깨닫게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니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느끼고 가게 해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